

혼합형 실습이 간호학생의 임상수기능력과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최순희1), 홍미순1), 소향숙1), 최자윤2), 윤소영3), 정향인2)

1)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2)부교수,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3)박사과정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최자윤(교신저자) : 광주시 동구 학동 5번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220-4343, choijy@jnu.ac.kr

Effect of Blended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Skills and Satisfaction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blended practicum combined clinical with lab on nursing students' skills and satisfaction. **Method:** A pre-post test nonequivalent control group experiment was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A total of 58 junior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C University in G city from May, 2010 to June, 2010. Ten hour lab practicum for 2 weeks was provided for the blended practicum group during the period of adult nursing practicum. The skill levels of gavage feeding and urinary catheterization were measured using checklists, and students' satisfaction was measured using a questionnaire.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um and total grades, and the level of skills between the blended practicum group (n=36) and the control group (n=22) were found at the pre-test. The result of t-test showed that the gavage feeding and urinary catheterization skill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blended practicum group at the post-test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7.026$, $p<.001$; $t=-3.286$, $p=002$). Students' satisfaction at the post test was also higher in the blended practicum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5.732$, $p<.001$). **Conclusion:** Blended practicum was more effective in skill improvement and self-satisfaction than only clinical practicum.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blended practicum on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such as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autonomy in self-study. In addition, more attempts to evaluate lab practicum using various lengths, contents and methods are needed in order to develop an effective blended practicum model.

Keywords: blended study, practicum, nursing, skill

Soon Hee Choi¹⁾, Mi Soon Hing¹⁾, Hyang Sook So¹⁾, Ja Yun Choi²⁾, So Young Yun³⁾,
Hayng-In Cho Chung²⁾

1)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isy · CRINS

2)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RINS

3)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응용학문으로서 간호학은 교육을 통해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이론적 간호지식을 실무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건강회복과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여 환자경과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장금성 등, 2005). 따라서 실무현장을 경험하는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비중이 크며, 강의를 통해 습득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임상실습을 통해 숙련된 실무가 균형을 이루어 간호교육의 목표가 달성된다(이성은, 2001).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서 간호 지식과 실무를 총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의사소통과 사정기술을 실제에 적용해 보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및 조직과 시간관리 능력을 익힐 뿐 아니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권인수, 2002). 이러한 임상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실습의 연계성 부족, 임상지도 교수의 실무능력 및 충분한 실습경험의 부족, 다양하지 못한 실습내용, 실습환경의 불균형(이성은, 1997; 2001; 조미혜, 권인수, 2007; 이에경 등, 2001)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임상실습 동안 간호학생들은 불안(박춘자, 1997), 스트레스(박미영, 2001) 및 자신감 상실(김연아, 2002)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임상실습 동안 학생들이 향후 간호사로서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간호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여 임상실습 동안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거나 실습실(lab) 실습에서 습득한 술기를 적용하는데 많은 제한을 갖게 된다(이정희, 성영희, 정연이, 김정숙, 1998). 따라서, 최근 대안적 실습교육모델로서 표준화환자를 이용한 실습(Stanardized patient method), 객관적 임상능력평가(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SCE), 시뮬레이션 교육, 임상수행평가(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CPX) 등(이여진 등, 2007; 이경희, 2006; 백지윤, 2006; 김윤희, 강서영, 김미원, 장금성, 최자윤, 2008)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과 임상실무현장을 연계하여 학생의 수행경험을 증진시키는 방안과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조미혜 등, 2007)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면서도 임상실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임상실습 중 빈발하는 술기를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신 실습실에서 모형이나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적용해보고, 실습실에서 연습해 본 술기를 임상에서 다시 관찰함으로써 술기에 대한 직접참여 효과를 얻고자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기관지내시경 술기를 훈련시키기 위해 강의, 실험실 실습, 고도사실성 마네킹, 가상내시경 및 표준화환자 등 여러 형태의 교육을 적용한 결과(Deutsch, Christenson, Curry, Hossain, Zur, & Jacobs, 2009) 각각의 교육형태마다 내시경 술기를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뮬레이션 활용 실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상실습의 효과를 OSCE를 통해 평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박혜숙, 한재진, 박미혜, 오지영, 2004), 임상과 실습실 실습의 병용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임상실습은 담당교수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과목이 아니며, 임상지도자와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일본에서 34개 병원의 384명의 임상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습 시 임상지도자와 교수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지도해야하는 교과목의 수, 간담회 횟수, 집담회 참석이나 지도 및 실습지도에 관한 교육 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Shiba, Saito, & Fukuzawa, 2010).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중 필요한 간호술기에 대한 대학과 실습기관의 지도자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간호술기에 대한 프로토콜의 일치가 학생의 혼란을 줄이고, 안전과 질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담당교수와 임상지도자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습기간에 임상과 실습실(lab)의 병용실습은 실습의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는 중요한 한 가지 시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수행경험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임상실습 모델의 개발을 위해 간호술기요구도가 높은 5개 영역 즉, 비위관영양, 유치도뇨관 삽입, 정맥주사 놓기, 수액펌프사용법, 중심정맥관 관리에 대해 실습실 실습과 기존의 임상실습을 혼합한 실습 운영 후 비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간호수기능력의 향상과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임상실습과 비교하여 임상과 실습실 혼합형 실습이 실습교육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상과 실습실 혼합형 실습이 간호학생의 임상술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둘째, 임상과 실습실 혼합형 실습이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3. 용어정의

1) 혼합형 임상실습

본 연구에서 혼합형 임상실습이란 전통적 임상실습동안 실습실 자율 실습방법을 함께 적용한 실습방법으로 임상실습 중 실습실 실습을 통해 간호수기를 연습하고 다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비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간호술기

간호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유재희, 1995)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실습실 실습 중에 시행한 비위관영양, 유치도뇨관 삽입, 정맥주사 놓기, 수액펌프사용법, 중심정맥관 관리의 5개 항목 중 비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을 연구자가 개발한 도구를 통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3) 실습만족도

실습 만족도란 임상실습의 다양한 측면에 나타나는 긍정적 반응으로(한수정, 2000) 본 연구에서는 성가연(200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4.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혼합형 임상실습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에 소재한 C대학 간호학과 3학년 1학기 성인간호학실습 I 2학점을 수강한 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G시 C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이었고, 대조군은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같은 병원 같은 병동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으로 시차를 두어 각각 36명과 22명을 선정하였다. 실험군은 2주 임상실습 기간 동안 1주일은 아침, 1주일은 오후 근무를 하였으며, 오후 근무인 주는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시간은 대학의 실습실에서 모형 및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실기실습을 한 후 임상실습을 하였다. 따라서 실습실 실습은 5일간 2시간씩 총 10시간을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기존의 임상실습을 유지하여 2주 동안 병동실습이 이루어졌다.

3) 연구도구

가. 비위관 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간호술기

비위관 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간호술기를 측정하기 위해 1개 기본간호학 교과서(송경애 등, 2009)를 바탕으로 비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 체크리스트의 초안을 만들었고, 연구팀에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으나 초안에서 수정 및 보완된 문항은 없었고 총 각각 10문항, 16문항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시행함은 1점과 시행을 못했거나 틀리게 함은 0점을 부여하였다. 신뢰도는 각각 chronbach α =.876, .899이었다.

나.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가연(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으로, 실습교육방법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학습자의 만족도, 학습내용의 적합성, 학습 성취도, 학습평가의 적절성으로 구성된 총 17문항의 질문지이며 연구팀 4인의 전문가 타당성을 거쳤다. 질문지의 학습성취도에 관한 문항 중 4개 문항은 본 연구와 관련성이 적어 삭제하였고 실기능력습득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아니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944이었다.

4)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였다. 실험군은 첫 번째 실험실 실습 시작 시 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삽입의 임상수기능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기본간호학 교수 1인과 임상경력이 8년인 실습조교 1인의 지도하에 위관영양, 유치도뇨관 삽입, 정맥주사놓기 및 수액펌프사용에 대해 실험실 실습이 이루어졌다. 2주간의 성인간호학실습 I의 임상실습 종료 후 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대한 임상수기능력에 대한 사후조사와 임상실습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 역시 2주간의 성인간호학실습 I의 전통적인 임상실습을 수행하기 전·후에 임상수기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실험군, 대조군 모두 임상수기능력은 교수 1인과 실습조교 1인의 관찰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자가평가에 의해 측정되었다. 모든 실험이 끝나고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대조군 학생들은 실험실 실습을 병용한 임상실습을 실시하여 대조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 기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사전 동질성 검사와 사후 효과검증은 t-검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전 동질성 검증

1) 사전 교과 성적

사전 교과 성적은 기본간호학 실습 성적이 대조군은 93.39점이었고 실험군은 92.80점이었으며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t=1.088$, $p=.260$). 직전 학년(2학년) 전체 교과 성적은 대조군은 85.31점이었고, 실험군은 82.54점이었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571$, $p=.122$)(Table 1).

표 1. 사전 교과 성적 (N=58)

교과목	간호술기점수		t	p
	대조군	실험군		
	(Mean±SD) (n=22)	(Mean±SD) (n=36)		
기본간호학 실습	93.39±3.51	92.80±5.62	1.088	.260
직전 학년 전체 성적	85.31±6.27	82.54±6.66	1.571	.122

2) 사전 간호술기 점수

사전 술기 점수는 대조군은 비위관영양 술기 5.43점, 유치도뇨관삽입 술기 9.00점이었고 실험군은 각각 5.75점, 9.67점이었으며, 두 군간에 사전 술기 점수의 차이는 없었다($t=-0.836$, $p=.407$; $t=-1.451$, $p=.152$)(표 2).

표 2. 사전 간호술기 점수 (N=58)

	간호술기점수		t	p
	대조군	실험군		
	(Mean±SD) (n=22)	(Mean±SD) (n=36)		
비위관영양	5.43±1.12	5.75±1.538	-0.836	.407
유치도뇨관삽입	9.00±1.76	9.67±1.621	-1.451	.152

3. 임상과 실습실의 혼합형 실습의 효과

1) 사후 간호술기 점수

사후 술기 점수는 대조군은 비위관영양 술기 6.14점, 유치도뇨관삽입 술기 11.05점이었으며, 실험군은 각각 8.69점, 13.33점이었다. 두 군간 사후 술기 점수는 두 가지 술기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7.026$, $p<.001$; $t=-3.286$, $p=.002$)(표 3).

표 3. 사후 간호술기 점수 (N=58)

	간호술기점수		t	p
	대조군	실험군		
	(Mean±SD) (n=22)	(Mean±SD) (n=36)		
비위관영양	6.14±1.32	8.69±1.33	-7.026	<.001
유치도뇨관삽입	11.05±2.33	13.33±2.64	-3.286	.002

2) 사후 학생 만족도

사후 학생 만족도는 대조군에서 평균 3.31점이었고, 실험군에서 4.16점이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5.732, p<.001$)(표 4).

표 4. 사후 학생 만족도 (N=58)

영역	만족도		t	p
	대조군	실험군		
	(Mean±SD) (n=22)	(Mean±SD) (n=36)		
학습자태도	3.76±1.34	4.42±.60	-2.538	.014
학습자만족도	3.44±.62	4.46±.65	-5.626	<.001
학습내용의 적합성	3.05±.77	4.01±.76	-4.617	<.001
학습성취도	3.47±.66	4.09±.70	-3.172	.003
학습평가의 적절성	3.20±.68	4.09±.63	-4.796	<.001
Total	3.31±.47	4.16±.54	-5.732	<.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습교육의 개선을 시도하는 한 방법으로 기존의 임상실습에 실습실 실습을 추가하여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및 실습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최근, 간호학에서 실습교육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임상실습에 시뮬레이션 실습을 접목하는 방법이다. 사실성이 낮은 마네킹부터 사실성이 높은 인간 시뮬레이터(human patient simulator, HPS)까지 실습보조 기구를 사용하거나 표준화환자와 같이 가짜 환자를 훈련시켜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다양하게 시도되는 실습교육 개선 노력이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나 지식 및 자기효능감 등을 포함한 여러 영역의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윤희 등, 2009; 양진주, 2008).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학에서 이루어진 여러 실습교육의 개선활동은 임상실습과 별개로 이루어져 임상실습에 대한 개선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은 강의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담당교수와 임상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시뮬레이션 실습의 경우에서도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 임상지도자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시뮬레이션 실습의 효과를 임상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 된 상황에서 확인하다보니,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습교육을 통한 교육성과가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성과와 얼마나 일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당교수와 임상지도자가 협력하여 임상실습을 지도하고 임상실습이 종료된 후 임상수행력을 평가하는 형식의 임상실습과 실습실 실습을 접목하는 실습개선을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백훈정(2004)은 실습실 개방 자율 실습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실습실 개방 자율 실습동안 담당교수의 지도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전체 학생 중 64%만이 참여하였

으며, 1년에 1인당 29.1분을 자율 실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실습실 개방 자율 실습은 기본간호학 실습과 겹목되어 임상실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생이 실습실 실습에 참여하였으며, 담당교수와 담당조교의 지도를 받았고, 1인 당 10시간의 실습실 실습이 이루어졌고, 임상실습 도중에 실습실 실습이 이루어져 실습실 실습 후 다시 임상현장에 돌아가 임상실습을 함으로써 실습실 실습을 통한 술기를 임상실습으로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임상실습에 실습실 실습을 추가한 형태의 실습 후 간호술기 평가를 임상실습 현장에서 하지 못하고 실습실 상황에서 실시했다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실습이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학생의 비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간호술기력을 증진했다고 확인하기는 어렵다.

성공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교수자와 임상지도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상실습 시 프리셉터(preceptor) 역할에 관한 연구(Smedley & Penney, 2009)에서 학생과 프리셉터 간에 협력적이고 파트너로서의 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임상지도자가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역할 전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학에서 임상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교수인 경우 임상실무에 대한 학생의 필수적 역량을 교육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Beres, 2006). 그러나 열성적이고 협력적인 프리셉터를 찾는 일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임상 전문가이면서 학문적 성과를 동시에 갖춘 교수자를 찾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임상실습에서 필요한 임상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실습실 실습을 통해 대학의 교수가 임상 전문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가 간호술기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실습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더욱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프리셉터나 수간호사 등 임상지도자의 실습 지도를 받고 있는 기존 실습에 비해 10시간의 실습실 실습만으로 임상실습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은 임상실습이 임상지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대학의 교수가 담당하는 실기 지도시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추후로 이러한 실습실 실습을 추가한 형태의 임상실습에 대한 반복적 연구로 혼합형 실습 모델 검증을 제언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습교육 개선의 한 방법으로 기존의 임상실습에 실습실 실습을 추가하여 학생의 임상수기능력 및 실습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유사실험 설계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C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1학기 성인간호학실습 I 2학점을 수강한 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2010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G시 C병원 정형외과 병동에서 임상실

습을 하는 학생이었고, 대조군은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같은 병원 같은 병동에서 임상 실습을 하는 학생으로 시차를 두어 각각 36명과 22명을 선정하였다. 실습실 실습은 5일간 2시간씩 총 10시간을 실시하였다. 간호술기는 1개의 기본간호학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든 위관영양과 유치도뇨관 삽입에 관한 초안을 수정 및 보완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으며, 임상실습만족도는 성가연(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사전 동질성 검사와 사후 효과검증은 t-검정을 사용하였다.

두 군간에 사전 교과성적과 간호술기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후 술기 점수는 비위관 영양 술기와 유치도뇨관 술기 모두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간호술기 점수가 높았다($p < .001, .002$). 임상실습 만족도 역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p < .001$).

본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 임상실습에 실습실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의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술기력 및 임상실습만족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 시 직접 수행해 볼 기회가 부족한 현 실정에 핵심 술기를 실습실 실습에서 보충하는 것이 임상수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형태의 임상실습의 효과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

- 권인수(2002). 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5), 706-715.
- 김연아(2002). *임상실습종료후 간호학생의 기본간호술 수행정도 와 자신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강서영, 김미원, 장금성, 최자윤(2008). 졸업인증 임상수행력평가의 유용성 평가. *간호행정학회지*. 14(3),344-351.
- 박미영(200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분노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7-21.
- 박춘자(1997).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시 느끼는 불안의 정도와 불안야기 상황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1), 34-45.
- 박혜숙, 한재진, 박미혜, 오지영(2004). 임상실습 전 학생과 임상실습 후 학생에서 시행한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평가. *한국의학교육*, 16(1). 63-71.
- 백지윤(2006).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사의 전문심장소생술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훈정(2004). 실습실 개방 자율 실습방법 적용이 기본간호학 실기 순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평가적 연구. *기본간호학*, 11(1), 13-20.
- 성가연(2008). *표준화환자를 활용한 인슐린 피하주사 실습교육의 효과*.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애, 이우숙, 박형숙, 윤은주, 이강이, 홍영혜, 조복희, 엄미란, 김순옥, 정경옥, 정승교, 박선남 외(2009). *기본간호중재의 적용*. 서울: 현문사.
- 양진주(2008). 간호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교육고가정 개발 및 평가. *성인간호학회지*, 20(4), 548-560.
- 유재희(1995). 기본간호학 실습교육의 현황, *기본간호학회지*, 7(1), 60-70.
- 이경희(2006). 정신간호학 임상실습 교육의 OSCE 적용. *계명간호과학*, 10(1), 187-197.
- 이성은(1997). 우리나라 간호교육기관의 현장실습교육 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226-245.
- 이성은(2001). 일 대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경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 333-348.
- 이애경, 김정애, 주미경, 정안순, 장은정, 김정수, 강정희, 이정애(2001). 임상실습 교육개선을 위한 간호학생의 간호활동시간 분석. *경북논총*, 5, 523-535.
- 이여진, 임난영, 이은희, 한혜자, 김주현, 손행미, 박영숙, 강현숙, 조경숙, 김동옥, 권성복, 이인옥(2007).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관절질환 간호사정 실습교육의 평가. *근관절건강학회지*, 14(2), 137-148.
- 이정희, 성영희, 정연이, 김정숙(1998).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간호활동시간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

지, 4(2), 249-263.

장금성, 김남영, 김윤민, 류세양, 박순주, 백명, 양진주, 정경희, 최자윤(2005). 근거 중심 간호.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조미혜, 권인수(2007).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중 간호활동 경험 정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3(2), 143-154.

한수정(2000). 임상실습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복돋우기와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32-146.

Beres, J. (2006). Staff development to university faculty: Reflections fo a nurse educator. *Nurse Forum*, 41(3), 141-145.

Smedley, A., & Penney, D. (2009). A partnership approach to the preparation of preceptors. *Nurse Education Perspectives*, 30(10), 31-36.

Deutsch, E. S., Christenson, T., Curry, J., Hossain, J., Zur, K., & Jacobs, I. (2009). Multimodality education for airway endoscopy skill development. *The Annals of Otolaryngology Rhinology Laryngology*, 118(2), 81-86.

Shiba, M., Saito, H., & Fukuzawa, Y. (2010). Factors influenc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clinical instructors and teachers in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Universi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32(2), 161-176.